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3. 12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매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3 / 12

다시 읽는 산방한담 4 겨울 숲

처음 마음으로 8 행복 가꾸기

천진난만 13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샌디에고 암탉 14 중국박물관 다녀오던 날

참교육 이야기 16 청소년들 이해부터 하라,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참 좋은 문화 길라잡이 20 함께 늙어가는 부모와 지식의 삶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 24 불필요에서 자유롭기 공유경제

사색의 뜰 30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

차내음가득한시간 34 세월의 향기 '보이차'

맑고향기롭게 활동소식 37 중앙, 광주, 대구, 경남, 부산 모임

길상사 소식 45



표지 사진 · 회원

나는 과일을
입으로만 먹지 않고
눈으로도 먹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

-법정-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 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3년 12월 1일 발행 / 통권 226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대전모임 : (042)823-0770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E-mail : kilsangsa@hanmail.net

겨울 숲

글·법 정(法 頂)

겨울바람에 잎이랑 열매랑 훑훑 떨쳐버리고 빈 가지만 남은 잡목숲. 가랑잎을 밟으며 석양에 이룬 숲길을 거닐면, 문득 나는 내 몫의 삶을 이끌고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를 헤아리게 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세월을 제대로 살아왔는가를 돌아켜볼 때 나는 우울하다. 가랑잎 밟기가 조금은 조심스럽다. 아무렇게나 흩어져 누워 있는 가랑잎 하나에도 존재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넘어다볼 수 없는 그들만의 질서와 세계가 있을 법하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있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 그렇게 존재한다.

지난 가을, 말뚝을 갠느라고 거의 산거(山居)를 비우다시피 하면서 여기서

기 시정(市井)을 동분서주했었다. 일을 마치고 산으로 돌아오자 그사이 잎이 물들었다가 벌써 낙엽이 지고 있었다.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밤바람소리에 한동안 있고 지내던 내 속뜰이 되살아났다. 평화와 정적이 깃든 그 내면의 여로(旅路).

산에서 듣는 바람소리는 컷전만을 스치는 것이 아니다. 저 뺨속에 묻은 먼지까지도, 핏줄에 섞인 티끌까지도 맑게 씻어주는 것 같다. 산바람소리는 갖비질을 하고 난 뜰처럼 우리들 마음속을 차분하고 정결하게 가라앉혀 준다. 인간의 도시에서 묻은 온갖 오염을 씻어준다. 아무런 잡념도 없는 무심(無心)을 열어준다.

바람, 눈에 보이지도 붙잡을 수도 없

는 나그네. 보이지도 붙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살아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손길이 닿는것마다 생기를 돌게 한다. 이 세상에 만약 바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살아 있는 것은 시들시들 질식하고 말 것이다. 모든 것은 빛이 아래 재가 되고 말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손에 붙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탕으로 보이는 것이 있게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의지해서 들리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도의 구루(종교적인 교사)인 라즈니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한 방울 물을 잘못 엮지를 때
우주 전체가 목마를 것이다
한 송이 꽃을 꺾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한 부분을 꺾는 일
한 송의 꽃을 피운다면
그것은 수만 개의 별을 반짝이게 함
이러
아,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처럼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로 이루어졌

느니.

흔히 겪는 일인데, 산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마루에 걸터앉아 앞산을 내다보기가 바쁘게 '왜 이렇게 조용하지요?'라든가 '너무 고요해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면서 무엇에 쫓기듯 안절부절 불안해하는 부류들이 있다. 물론 그들은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 말하자면 도시형 관념적인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도시의 혼잡과 소음에 잔뜩 중독된 나머지 본래적인 질서와 고요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어디에도 의존함이 없이 순수하게 홀로 있는 시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무엇인가 기대지 않고는 홀로 설 수가 없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고요를 감내할 수 없어 흐르는 시냇물소리가 묻히도록, 맑고 투명한 새소리가 무색하도록 트랜지스터를 틀어대거나 고래 고래 고향을 질러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이상하게, 정말 이상아듯하게 변질되어가고 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있음'에만 의존하는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현상에만 매달리려는 것일까. 침묵이 없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발음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하나 허(虛)를 배경삼지 않은 실(實)이 존재할 수 없다.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개시허망(皆是虛妄) 약견 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 諸相非相 卽見如來)'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은 모두가 허망한 것, 그러니 제상(諸相)과 비상(非相), 즉 현상과 본질을 함께 볼 수 있다면 비로소 우주의 실상(實相)을 바로 보게 될 거라는 뜻이다. 표현을 달리한다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로 인식하려면 드러난 단면만 보지 말고 그 배후까지도 함께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 불일암 둘레의 숲속에는 산토

끼와 꿩들이 살고 있다.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나를 믿어서인지 나를 보고는 놀라 달아나는 일이 없다. 눈이 많이 내려 쌓일 때면 가끔 콩 같은 걸 뿌려주는데 그런 때는 가까이 다가와 마음 놓고 주워 먹는다. 이런 걸 지켜보고 있으면 가슴에 훈훈한 물기가 도는 것 같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보고는 이내 달아나버린다. 어쩌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뜰에서 어정거리는 꿩이나 토끼를 보면 그들은 반색을 한다. 식탁의 요릿감으로만 보여 잡아먹을 궁리나 하지 짐승이 같은 생물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이웃의 정은 기르려고 하지 않는다. 순박한 짐승들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묘리를 직감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모양이다.

12월 초순인 요즘도 대숲머리에 있는 두 그루 감나무에는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강추위가 오기까지는 얼마 동안 더 달려 있을 것이다. 더러는 꿩과 새들이 쪼아 반쯤 허물어진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말짱한 그대롭다. 벌써 부터 사람마다 왜 따지 않느냐고 입맛

을 다시곤 했지만 나는 과일을 입으로만 먹지 않고 눈으로도 먹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다. 실은, 내 뜰에 놀러온 새들에게 따로 대접할 게 없으니 감이나 먹고 가라고 남겨둔 것이지만, 나는 나대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초겨울 하늘 아래 빨갛게 매달려 있는 감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니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앞산에 눈이라도 하얗게 내려 쌓이는 날, 빈 가지 끝에 매달린 저 감의 빛깔을 본 사람이면 잘 알 것이다. 그기막힌 빛의 조화를, 큰절 문수전에 살던 혜담 스님은 한해 겨울눈이 내리는 날이면 그 신비로운 감의 빛깔을 보기 위해 비탈길을 미끄러져 가면서 일부러 올라오곤 했었으니까. 겨울철 빛깔의 조화치고는 일품이 아닐 수 없다. 입으로만 먹고 말았다면 어떻게 이토록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감 맛을 볼 수 있었겠는가. 예이츠의 시에선가, 술은 입으로 들고 사랑은 눈으로 듣다더니 아름다움 또한 눈으로 드는 것일레라.

겨울 숲은 부질없는 가식을 모조리

떨쳐버리고 본질적인 것으로만 집약된 나무들의 본래 면목이다. 숲은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다. 침묵을 딛고 일어선다. 봄날 움을 틔워 초록빛 물감을 풀어 수줍게 설레다가,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받아 서늘한 그늘을 대지에 드리운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익히면서 이 골짜 저 골짜에서 울긋불긋 서로 손짓하다가 마침내 미련 없이 낙하(落下). 머리와 팔을 허공에 치켜든 채 이제는 말없이 묵상에 잠겨 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자신에게 자신을 만들어준다. 이 창조의 노력이 맺을 때 나무건 사람이건 늙음과 질병과 죽음이 온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들은 표정을 잃은 채 덩덤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잠시도 창조의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땅의 은밀한 말쑤에 귀 기울이면서 새봄의 싹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시절인연이 오면 안으로 다스리던 생명력을 대지 위에 활짝 펼쳐 보일 것이다. (1982)

-산방한담 중에서

행복 가꾸기

글 • 덕 윤(德 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만납니다. 가까이에서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마다 인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고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감사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냥 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이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다리던 귀중한 하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낙엽 지는 가을에 죽었던 사람들을 깨워서 다시 살게 한다

면 그 사람들은 허락받은 세월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모르긴 해도 오늘날 우리처럼 시간을 무가치하게 낭비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선진국에 속하지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보다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복지수란 주관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행복하다고 할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한 일이 되지 않

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고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꽃향기나 차 향기처럼 내부에서 은은하게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행복이란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미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먼 훗날의 잡히지 않는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죽여 나간다면 그것은 불행을 키우는 일입니다. 높은 벼슬과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절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만족할 때 오는 것입니다. 행복을 너무 큰 데서 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 자리에 앉아 차물을 끓이고 차잔을 놓고 하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겠지만 저는 특히 '삶을 살아가면서 차가 없었다면 무슨 재미로 중 놀이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 한 잔을 통해서도 충분한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것에서 만족한다면 행복은 주위에 가득 널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비록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은 상황들도 오히려 고마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어디에서 옵니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주어진 것을 누리며 마음을 따뜻하게 가꾸어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것에 만족하며 마

음을 잘 가꾸어 간다면 그 마음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에서는 꽃과 나무들이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행복을 꽃 피웁니다. 사람도 타인과 비교에서 오는 삶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행복이 싹튼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이웃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이웃과 주위에 나누는 일이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복은 결코 불로소득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황재를 꿈꾸며 복권을 삽니다. 그러나 설사 복권에 당첨되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이 되어 밤에도 잠을 설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친척이든 친구든 자기의 돈을 탐내는 도둑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

들은 돈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투기를 정부에서 조장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선량한 국민들에게 잔뜩 바람을 넣어 허황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스님 중에도 복권을 사서 어떻게 운이 좋아 몇 십 억짜리 복권이 당첨되었는데, 그 돈으로 헛된 곳에 쓰다가 결국 중 놀이도 못하고 속퇴하고, 속퇴했어도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투기는 인생을 망치고 삶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코 이런 것에 속아서 안 될 것입니다.

부처님 경전 중에는 범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방대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전도 있으나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경전도 많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경전이 <법구경>과 <숫타니파타>입니다.

<법구경>에 보면 '진정한 행복의 장'이 있는데 이곳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원한을 버리고 즐겁게 살자.

고뇌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탐욕스런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탐욕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원함과 고뇌, 탐욕 등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에 물들지 말고 즐겁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타니파타의 '더없는 행복' 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 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남에게 베풀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며 적

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 비난을 받지 않게 처신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보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고, 이웃에게 덕을 나누어 주며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떨정한 육신을 가지고도 무가치하게 하루하루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불행한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묵은 과거에 생각이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생각에 갇혀서, 두고두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슴에 멍이 들고 가시가 돋치게 됩니다. 이러한 묵은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연은 계절을 따라 순간순간 변화

하면서 항상 새로움을 연출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유연하지 못하고 항상 굳어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갑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됩니다. 한 생각 돌이켜서 부드럽고 따뜻한 본래의 가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제도 그냥그냥 오늘도 그냥그냥 똑같이 되풀이되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죽어있는 삶이고 고여서 썩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보다 새로워지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과거의 묵은 생각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매일 거듭나야 합니다.

자연 속의 나무도 꽃도 항상 순간순간 변화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잎과 꽃을 피워냅니다. 우리도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며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가꿔야 합니다.

묵은 수렁의 의식 속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타성의 늪에 젖게 하지 마시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 거뜨거뜨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 불기 2557년 10월 초하루 법문
(2013년 11월 3일)

지난 한 해를 보내며

맑은 만남(淸逢)

산

한 ○ 을
환기시켜...



지난 한 해를 환기시키며 나는 이웃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지
보지 못했다. 잘 산 한 해였는지 걱정사실을 할 때 생각한다.
행동한 것만은 이웃에게 향한 것은 나중엔 그 날 자주는
환기가 되어 있고 잘 산 것이다.
이웃과 나중은 많은 것이 생긴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하고 바뀌는 그 마음의 흐름이다.
나중은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이 나중은 기쁨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소소한 감동,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 우리 가족 이야기 등 소중한 경험들을 자유롭게 써서 보내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회원, 길상사 신도 그리고 독자 참여 지면을 늘여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보낼 곳
주소 :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길상사내 (사)맑고 향기롭게
이메일 : clean94@daum.net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국박물관 다녀오던 날

글 • 최미자(재미수필가)

12월 첫째 날이다. 반가운 비가 어제 종일 내렸다. 오늘 아침엔 해가 뜨는 가 했더니 비가 오락가락한다. 중국박물관 모임에 가자며 이사장으로 있는 미국인 친구가 초청장을 보내왔다.

토요일이라서 근처 쇼핑몰의 주차장도 만원이었다. 운이 좋게도 떠나는 자동차가 바로 내 앞에서 시동을 걸고 있어 금방 차를 주차할 수 있었다. 빌딩을 빠져나와 낯선 길에 서서 방향을 더듬어 보았다. 아직도 매끄럽지 않은 문화와 언어의 이질감 때문일까. 동양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걸어야 하면 조금 긴장이 된다. 혼티가 나지 않게 당당히 당당하게 걸었다. 소문이 난 샌디에고 중심가 가스램프, 낮에는 세계의 관광객들이

걸어서 다니는 곳.

나를 초청한 W교수는 갑자기 출장을 떠나게 되어 나 홀로 박물관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십 명의 중국인과 미국인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내가 한인이라니 반겨준다. 같은 아시아인으로 나도 후원회원이 된다는 것이 이제야 등록했다.

한국 사람이 세운 박물관이 없기에 같은 동양 문화권에 사는 사람으로 작지만 힘을 보태고 싶었다. 예술에는 국가적, 종교적, 언어적 장벽도 없지 않는다. 오직 인류를 위한 기쁨과 평화만 존재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매년 자기나라의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 중국인들의 단합된 모습과 훌륭한 행사를 보며 배운다. 또 기회

가 생기면 나도 우리의 아름다운 한국 문화와 예술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진열장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마카오 사람이 만들었다는 아름다운 원석 목걸이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물관은 오래 전부터 뜻을 함께한 지혜로운 중국인들이 한푼 두푼 모아 미래를 내다보고 마련한 것이다. 중심가의 관광객들이 다니는 조그마한 이 박물관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이 되었다. 또한 박물관 근처에는 오래 된 중국이민자들이 군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 노안의 관장이 '박물관 10년 회고록'을 내 손에 쥐어준다. 손이 큰 중국인들은 해마다 박물관 운영을 위해 몹 돈을 기부하기에 기반도 탄탄했다. 내 친구처럼 아시아를 사랑하는 백인들까지 후원회원이다. 바로 길 건너에는 중국공사관도 있었다. 누군가는 중국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언제나 명당

이라고 했다.

중국박물관 행사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중국교포들은 세상과 후손을 위해 주류사회에 보여주고 무엇인가를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부러웠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샌디에고의 한인 회장 선거 날 이다. 이곳에 20년을 살았지만 이상한 한인회의 정관 때문에 투표권이 없어 선거에도 참여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날이었다.

미 주류사회에 살며 이민자들에게 주는 이익을 찾으며 소수민족으로 단합하여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헌신적인 봉사자가 필요한데 그게 아니니 답했다. 순수했던 한인회가 명예와 돈을 탐내는 단체로 변질했으니 말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빗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가슴 속에는 슬픈 비가 쏟아져 내리던 쓸쓸한 오후였다.

최미자님은 맑고 향기롭게의 회원입니다. 2권의 수필집을 출간하였으며 현재 월드코리아 신문에 'Essay Garden'칼럼 연재 및 샌디에고 라디오 코리아 방송에서 '최미자의 문학정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수필집 '샌디에고 임탁' 중에서 발췌하여 연재합니다.

청소년들 이해부터 하라,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글·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보리학교 김용택 선생님이세요?”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선생님,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학교가 안 가려고 해요?”
 “왜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에 ‘너 학교 안 가니?’라고 물었더니 ‘저 오늘부터 학교 안 갈 거예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하죠?”
 낯선 사람에게서 가끔 이런 전화를 받는다. 대안학교인 가온누리센터(법) ‘보리학교’를 시작한 후부터 오는 전화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다

창원에 가면 지속형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가 있다.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온갖 어려움을 딛고 만든 학교다. 무너진 학교를 두고 학교를 보내면 교육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학부모를 어떻게 모른 채하느냐며 교육감을 설득해 만들었다. 설립 때 TF팀장을 맡은 게 인연이 되어 2011년부터 2년 동안 이 학교에서 ‘대안학교지원센터장’을 맡아 아이들을 돌보며 지냈던 일이 있다.

시험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짰다. 교칙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복장이나 두발의 규제를 두지 않았다. 장래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턴십(LT: learning through

internships)이라는 과정에 넣었다.

가수가 되고 싶은 학생,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학생, 한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 제빵 기술자가 되고 싶은 학생… 이런 학생들이 사회현장에서 일하는 멘토를 만나 스스로 배우고 배운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는 학교다.

입학 때가 되면 3~4대 1의 경쟁률이 말하듯 인기가. 흔히 사람들은 대안학교라고 하면 문체이(?)들을 모아두는 학교라고 생각한다.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는 그런 학교가 아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일종의 특성화학교다.

전국에 대안학교가 130여개나 된다. 인가받은 중등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34개(중학교 10, 고등학교 24), 이 가운데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경기대명고, 태봉고, 전북동화중, 한울고등학교 등 4곳 밖에 없다.

대안학교는 그 숫자만큼 정체성이 다양하다. 연간 공납금이 수천만 원이나 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말이 대안학교

지 일류학교에 입학할 시키기 위한 입시전문기관인지 구별이 안 되는 학교도 있다. 공립이 있는가 하면 사립도 있고,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있는가하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대안학교도 부지기수다.

학부모들 중에는 학력인정도 받고 시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공립대안학교를 찾는다. 공립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는 가난한 학생, 끼가 있는 학생, 일반계학교에 자퇴를 한 학생이 오는가 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씩 놀던 아이,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도 입학한다. 대안학교를 찾는 부모들이 다 그렇지만 태봉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마음잡고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차 있다.

대안학교를 만들다

합격하지 못할까 안절부절못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학부모들… 희망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다. 떨어저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을 보고 몇몇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태봉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해 실망하는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탈학교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만듭시다.’ 그래서 만드게 가운누리센터(법) ‘보리학교’다.

보리학교는 필자가 여상에 근무할 때 가르쳤던 제자와 학교 근무가 끝나면 퇴근하는 시간에 찾아와 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지역 인사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에게는 일체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싫어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시간 맞춰 공부하러 오지 않는다. 어떻게 마음 붙일 곳이라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선생님들의 사랑이 아이들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책을 읽어 주거나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하나둘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체험 학습이나 책 읽기도 하고 여름이면 제주도나 지리산 등반을 가기도 한다. 학생들 중에는 검정고시를 치르겠다는 기특

한 학생도 있어 벌써 4명이나 합격했다.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는 학생을 보면 기특하고 신기하다. 하루 종일 피곤한 일과를 마치고 이 아이들 돌보러 오신 선생님들 중에는 ‘내가 이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면서 오히려 고마워하기도 한다.

버려지는 아이들, 누가 지켜줄 것인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만 무려 10만6022명이다. 학령기(초 1~고 3)의 어린이와 청소년 수는 713만 명이다. 이들 중 658만 명은 학교에 다니지만, 나머지 4%인 28만 명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교육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학령기 학생들이 이 정도라면 그 전에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얼마나 될까?

해마다 쏟아지는 ‘탈학교’ 아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 그들

은 버려져도 괜찮은 존재일까? 학교가 싫어 방황하다 홈스쿨링이나 대안학교를 찾아오는 아이들……. 그런데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고 또 다른 차별·소외감·열등감 때문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른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기를 강요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의사나 판검사가 돼야 하는지, 사회적 지위가 왜 필요한지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어른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가치와 기준으로 살기를 강요받으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 너를 위해서야,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이런 말로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까?

어렸을 때 유난히 말썽을 피우는 아이가 있다. 부모 말은 도무지 듣지 않고 생떼를 부리며 유난스러운 아이들……. 어른들은 그런 아이에게 ‘문제아’라는 딱지

를 붙여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를 좋아한다. 어른들은 왜 아이들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부모의 기준에서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 내 자식이니까, 우리 기문을 일으켜 세울 사람,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 줄 사람으로 커 주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부모님들이 살아온 세상과는 다른데……. 그들에게는 자기네들이 바라는 꿈이 따로 있는데 어른들의 기준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와 규범에 맞추지 못해 안달일까? 일 등을 해야 하고, 일류 대학을 나와야 하고, 고시에 합격해 판검사나 의사가 되어야 하고, 반드시 공무원이 되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스펙 쌓기보다 개성에 맞는, 소질과 특기를 살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없을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까?

함께 늙어가는 부모와 자식의 삶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

글·서정민갑(대중음악의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변화무쌍합니다. 어렸을 때 자식에게 부모는 하늘입니다. 자신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주는 보호자이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도 다 해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바로 부모입니다. 젖을 먹이고, 똥을 치우고, 잠재워주고,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고, 함께 놀아주는 부모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신하이며 자신을 통제하는 어른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면 그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식이 스스로를 독립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자식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쓸렸던 권력 관계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자신이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마냥 좋기만 했던 엄마와

아빠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뜻을 인정해주지 않고 부모의 뜻을 따르라고 명령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와 자식은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 싸우게 되고 멀어지게도 됩니다. 통합되었던 관계가 비로소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부모의 역할은 줄어들어갑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비싼 등록금과 낮은 임금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 기대는 경우가 많지만 어찌되었건 더 이상 어린이처럼 부모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부모들도 많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면 그 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결정과 행동을 존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식이 어른다운 결정을 내리며 의젓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놓게 됩니다.

반면 자식은 자신의 젊음에 비해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부모의 생각에 온전히 동의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배워가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며 자신을 키워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 드려야 하는데 부모님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갑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지고 기력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머리가 빠지고 주름살이 늘고 등이 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은 남몰래 눈물짓습니다. 그러다 훌쩍 먼저 떠나시기라도 하면 자식들에게 부모님은 평생 가슴 아픈 상처와 후회로 남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해주는 게 거의 없는 사회이고 모든 걸 스스로 책임져야 하다 보니 늙어서 돈 없고 병 들고 혼자되

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독거노인과 고독사 같은 문제가 생겨난 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노인자살률 역시 엄청나게 높습니다. 평생 아등바등 고생만 하다 살아가야 하는 게 한국인의 삶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서로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중년의 자식과 노년의 부모 역시도 서로에게 마음 편한 존재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해도 사실 부모와 자식은 사소한 일에서도 끊임없이 부딪치며 싸우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이 나이 들어 바뀌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나이 들면 더더욱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나이 들어서도 그러려니 하면서 친구처럼 가볍게 지내는 부모자식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일본의 만화가 오카노 유이치가 쓰고 그린 <페코로스, 어머니 만나러 갑니다>는 바로 이런 중년의 자식과 노년

의 부모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만화입니다. 1950년 나가사키의 비탈진 동네에서 태어난 오카노 유이치는 맨손으로 도쿄에 올라와서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런저런 사연으로 아이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 늙어가며 치매가 진행되는 어머니의 모습을 네 컷 만화로 그려, 자신이 일하던 지역 정보지 한 권에 실기 시작했습니다. 페코로스는 동글동글한 체형과 반들반들한 대머리 때문에 얻게 된 작가의 별명입니다. 그는 만화가 책 한 권 분량이 되자 책을 자비로 출간했는데 이 책이 의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나가사키 지역 서점에서 1위를 하고, 서일본신문사를 통해 정식 출간된 다음에는 순식간에 전국 서점 종합 베스트셀러에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어머니의 사연은 NHK를 통해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데 이어 2013년 가을에는 모리사키 아즈마 감독 작품의 영화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만화 한 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공은 거의 거둔 셈입니다.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화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와 나이 들어 대머리가 된 아들의 사는 이야기 일뿐입니다. 그럼 역시 단순하고 에피소드도 짧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는 자식의 결혼 문제로 지지고 볶는 한국의 막장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졌고 녹내장 증세도 있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을 치지만 그걸 만화로 옮기는 자식은 그 사건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화를 내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흉하거나 추한 것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고 담담하게 그려내는 자식의 마음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머니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더 호전될 리도 없고 어머니가 언젠

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 분명하지만 자식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감사해 합니다. 그 넓고 따뜻한 마음이 이 만화를 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이따금 정신이 돌아올 때나 돌아오지 않을 때나 늘 자식을 생각합니다. 이불 끝을 잡고서 보이지 않는 실과 바늘로 꼼지락 꼼지락 거리며 아들 나들이옷을 기워준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담은 에피소드를 보면 본능 같은 어머니의 사랑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상상 속에서 시간을 수시로 거슬러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던 남편을 용서하고 그리워하는 모습에서도 마음이 짙해집니다. 치매에 걸려서도 원폭 떨어진 날 죽은 딸 히로코를 보살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만화에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작품을 그린 만화가 오카

노 유이치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만화가가 오카노 유이치뿐이었습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만화가가 어머니 얘기를 그려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화로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나이 들어간다는 것, 나이 든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만을 아름답다 생각하고 나이 들지 않으려고 애쓰고, 병들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이 작품은 우리가 나이 들고 병들어서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니, 나이 들고 병들어야만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인생은 늘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꼭 함께 봤으면 하는 작품입니다. 그분들은 침침해서 못 보시기 전에, 보여드리고 싶어도 지금 이곳에 안 계시기 전에…….

불필요에서 자유롭기

공유경제

글 • 변택주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불필요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 하였고, 윤구병 선생은 법정 스님 책 <무소유> 추천사에서 '무소유는 공동소유로 나눔과 섬김 바탕'이라고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본디 '우리 사이'였지 '나와 남'이 아니었다. '나와 남'이 떨어지면서 남은 '대상'으로, '사물'로 바뀐다. 더불어 살기는 대상과 나로 갈라진 사이를 다시 이어 '우리'로 돌려세우는 일이다.

가지지 않고 나눠 쓰기

'사람을 보듬는 기술'을 내세우며 학문 경계를 무너뜨리고 연구하는 곳 'MIT 미디어 랩' 소장 조이 이토는 "이제는 공유共有 혁명 시대"라고 힘주어 말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세상을

바꿀 10가지 방법'을 알리면서 '공유경제(Economy of Communion)'를 꼽았다.

집집마다 버리려니 이깁고 그냥 두려니 자리만 차지하는, 잘 타지 않는 자전거, 몇 번 입지 않은 옷 따위가 적지 않다. 이제는 쓸모가 없거나 넉넉한 것을 나눠 쓰고 바꿔 쓰며 '가지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쓰는 공유경제. 넘치는 생산과 지나친 소비로 빚어지는 문제를 돌아보는데서 싹튼 문화이다. 더는 입을 수 없는 아기 옷이나 아기용품을 빌려주거나, 남는 텃밭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재능을 서로 바꾸어 쓰는 공유경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물결을 타고 시공간을 넘어 물건이나 서비스를 함께 쓰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빈방 나눠 쓰기

빈방 빌려주기로 일어난 회사 '에어비엔비(airbnb)'는 2008년 파산위기 창업자들이 온라인에서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빈방을 빌려주면서 움뚧다. 이제는 전 세계 192개 나라 3만 3천여 곳에 있는 빈방을 SNS로 중계해 5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가치 기업으로 자랐다. 에어비엔비는 페이스북, 트위터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여행할 곳에 있는 숙소를 고르고 나서 예약을 하고 몇 시간 뒤 집주인이 예약확인을 하며 건네준 전화번호가 담긴 이메일을 받으면 된다. 호텔은 세계 어디서나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객실 규격이 있지만, 에어비엔비에서 만나는 곳들은 '나무 위에 있는 집', '오래된 유럽 성', '이글루' 또는 '뉴욕 펜트하우스'에 이르는 남다른 숙박 경험이 SNS 물결을 타고 공유경제 한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

시간단위 차 빌리기

공유경제에서 빠질 수 없는 분야가 카셰어링 비즈니스다. 미국 차량대여

업체 'Zipcar'는 시간단위 렌탈서비스로 새로운 개념 카셰어링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도시 곳곳에 있는 주차장에 Zipcar 전용 차량을 세워두고 회원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써서 가까운 주차장에 들러 무선인식 전자태그를 인식해 'Zipcard'로 차를 바로 쓸 수 있다. 영업점까지 찾아가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도 한 시간 단위로 가까이 있는 차를 싼값에 바로 쓸 수 있어 인기가 높다. 2011년 나스닥에 상장돼 한때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릴레이라이즈'라는 개인 자동차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핀리스터'는 쓰지 않는 자전거를 공유를 선보이고 있다.



'Zipcar'

투자금 모으기

물품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투자를 받으려는 사람과 소액투자자를 이어주는 모델도 흥미롭다. 소셜 크라우드 소싱 '킵스타터(kickstarter)'는 투자를 받으려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바라는 단순한 구조로 음식, 게임, 기술, 디자인 같은 13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재미있는 홍보영상이나 사진으로 제품을 알리며 투자금에 따라 옵션을 붙여 선택 폭을 넓혔다. 이를테면 5달러를 내면 감사편지를 보내고, 10달러를 내면 제품을 주는 것을 비롯해 여러 조건을 내놓아 투자자를 모은다. 투자금은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싶는데 어떻게 투자자를 모을 수 있을까? 킵스타터는 목표액을 채워야만 출금이 되도록 해, 여러 사람 공감을 얻지 못해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투자자 부담을 덜었다. 그리고 목표액만 채우면 투자금에 얼마간 보상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트 위치로 불리는 '페블'이 좋은 본보기로 스마트

폰과 연동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는 여러 쓰임새를 선보이며 1천만 달러나 투자를 받았다.

생계형 창업자 살리기

공유경제에는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적은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가 세운 '그라민 Grameen 은행'처럼 담보능력이 없고 신용도가 약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을 빌려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도 있다. 제시카 잭클리 Jessica Jackely가 2005년 세운 'Kiva'는 비영리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오프라 윈프리, 빌 클린턴 같은 저명인사 지지를 받으며 2013년 1월까지 4억 달러나 되는 돈을 100만에 가까운 저개발국가 사람에게 빌려줬다. 취지가 조금 다를 뿐 마이크로 파이낸스도 다른 금융사업과 다를 바 없이 돈과 지점 같은 인프라가 중요하다. 그라민 은행은 2005년에 이미 1700여개 지점에서 550만 명이나 되는 빈민에게 6억 달러를 빌려주는 규모를 갖췄다. 그런데 Kiva는 아주 작은데



KIVA 설립자 제시카 잭클리

다가 금융기관도 아니었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금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대표주자로 자랐다.

마이크로 파이낸스 참여자는 자금 제공자와 저개발국 대출자로 나뉜다. 그래서 그라민 은행은 정식은행이 된 1983년에 Krish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서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Kiva는 비영리구호단체이므로 이자를 받지 못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Kiva가 운용하는 4억 달러는 모두 무이자로 기부자에게 받는 돈이다. 이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내놓은 사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개인끼리 하는 P2P 금융거래이다.

제시카 잭클리는 Kiva를 세우면서 가

장 케냐에 가서 자립할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인터뷰해 'KIVA.org'란 사이트를 만들어 케냐 예비사업가들 사진과 살아가는 환경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삶과 사업계획을 올렸다.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예비사업가를 골라 기부한 뒤 내가 투자한 사람들 삶이 어떻게 바뀌고 사업성과는 어떤지, 업데이트 되는 정보로 정서를 공유한다. 제시카 잭클리는 "그동안 기부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죄책감을 덜어내는 면죄부 노릇을 했다면, Kiva 기부는 한 사람 삶을 애정과 관심 두고 지켜보는 희열을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골랐는지, 돈을 받은 사람은 뜻에 맞게 돈을 썼는지, 사업에 문제는 없는지를 잘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그라민 은행은 지역을 돌며 대출자를 만나 원금을 돌려받는 관리자가 3만 명이나 된다. 그리고도 모자라 대출자를 5명 단위로 묶어 한 사람이

라도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가 책임을 지게끔 했다. 그런데 2005년 창업을 한 Kiva는 2013년 현재 100명 남짓한 직원 뿐이다. Kiva는 대출자를 관리할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 바로 곳곳에 있는 금융기관이다. Kiva에서 기부금을 전달받은 지역파트너는 기부자가 고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 22퍼센트를 투자 받은 이에게 받는다. 이는 심사부터 대출금회수까지 관리를 감당하는 돈이다.

우리 공유경제 어디까지 왔을까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문화를 퍼뜨려 삶을 바꾸려는 프로젝트가 썩이 트고 꽃을 피우고 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빌려주고 빌려 쓰도록 중개해주는 온라인 물물교환 사이트가 여럿 열려 있고, 잘 입지 않는 정장을 청년 구직자들에게 기증하거나 빌려주는 '열린 옷장',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만드는 도서관 '국민도서관 책꽂이', 아기 옷을 기증하거나 바꿔 입을 수 있는 '키플', 외국 사람에게 홈스테이를 알선하는 한국판 에

어비엔비 '코자자'가 있다. 소셜 크라우드 소싱을 지향하는 '텀블벅tumblrbug'도 있다. 텀블벅은 영화, 음악, 미술, 출판, 건축, 사진, 디자인, 테크놀로지, 게임, 요리, 제조를 아우른다. 아직까지는 천만 원이 되지 않는 몇 백만 원 단위 소액 투자자를 모집이 줄을 잇고 있는데, 투자를 받는 이들은 텀블벅에 모금액 5퍼센트 수수료를 내야 한다.

희망가게 프로젝트

그리고 '미소금융'을 비롯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같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도 있다. 그 가운데 남달리 빛나는 곳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10년 세월 한 발한 발 알차게 꾸려가는 살림터로 '희망가게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2003년 아모레 퍼시픽을 세운 서성환 회장 일가가 아름다운 재단에 내놓은 돈으로 시작한 '희망가게'는 한 부모 여성 가장에게 창업할 돈을 빌려준다. 2003년부터 2013년 11월초까지 10년 동안 모두 200곳에 문을 열었는데, 지원자들은 서류 심사 1,2차를 거쳐 면접, 기술, 현장

실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나면 대출 자금 4,000만 원을 지원 받는데 그치지 않고 업종 선택을 하고 가게 자리를 고르고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아름다운재단과 손잡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아름다운재단이 펴낸 '희망가게 10주년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희망가게 월평균 매출은 674만4000원, 평균 순수익은 253만3000원이다. 그동안 19억4600만원이 상환되어 앞으로 희망가게 49곳을 더 열 수 있는 힘이 고였다. 이룬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면 106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제까지 200개 가운데 30퍼센트가 문을 닫아 올해 6월 기준으로 폐업률이 15퍼센트나 된다. 그러나 2011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고 5년 폐업률 53.6퍼센트에 견주면 매우 낮은 수치다.

사회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소

유의 종말〉에서, 돈이 지닌 속성은 소유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가지려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치거나 내 것을 지키려고 삶을 헛되이 쓰기 내려놓는다. 그래서 소유는 점속으로 바뀌고 교환가치는 공유가치로 탈바꿈하는 새로운 세기가 온다고 했다.

- 지난 2012년 4월부터 사회에 공헌하며 실천하는 인물과 기업을 소개해준 변택주님의 가슴이 따뜻한 기업들은 이번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이 면을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편집자주

맑고 향기롭게 페이스북 안내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모임의 활동 이야기와 좋은 글을 일상 속에서 나누기 위해 '페이스북'을 개설하였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맑고 향기롭게를 만나보세요.

<https://www.facebook.com/clean94.or.kr>

우리는 모두 이어져 있다

글• 김선애

홈리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청년과 장애인 기부자들이 만들고 홈리스가 파는 잡지가 있다. 바로 <빅이슈>다. 이 잡지에는 이효리, 달라이 라마 등 유명인의 인터뷰와 사회문화 관련 기사가 실린다. 나는 어느 책을 읽다 이런 좋은 취지의 잡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어느 날부터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빅이슈>를 파는 분을 보면 다가가 사게 되었다. <빅이슈>는 광화문역, 홍대입구역 등 주로 지하철역 입구에서 판매한다. 빅이슈 판매원을 줄여서 '빅판'이라고 하는데, 빅판에게는 불별더위에도,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에도 변함없이 거리가 일터다. 요즘처럼 여름에는 폭염이, 겨울에는 혹한이 계속될 때에도 곳곳이 일하는 그분들을 보면 그 의지가 대단하

게 느껴진다.

올가을 종로구청 입구의 빅판에게서 잡지를 산 날이었다. 커다란 나무 밑에 가지런히 쌓아 놓은 잡지가 눈길을 끌었다. 눈이 마주치자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빅판 분의 환한 웃음에 기분이 좋아졌다. 신간을 사서 포장을 뜯어보니 빅판 분의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그 분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지만 <빅이슈> 판매를 통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다. 거친 비바람 휩쓸고 지나간 땅을 다시 정성스럽게 일구어가는 그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잡지에는 '우리 동네 빅판'이라는 코너가 있다. 여기에서는 매호 빅판 한 분

씩을 소개하는데, 빅판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과정과 앞으로의 꿈을 이야기한다. 작은 김밥집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언젠가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어하는 분도 있다. 독자들은 빅판의 꿈을 응원하며 잡지를 산다. 잡지 가격의 50%가 빅판에게 돌아가는데, 빅판은 이 돈을 저축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직업 훈련을 받아 새로운 직업을 갖기도 한다. 얼마 전에는 내가 가끔씩 잡지를 사던 한 빅판 분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셨다. 그 소식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독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다른 독자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한 것 같았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도 <빅이슈>로 이어진 사람들이 나누는 행복이다.

잡지에 소개된 어느 빅판은 추운 겨울에 <빅이슈> 판매를 시작했는데 누군가 다다가와 목도리를 돌려주고 줬다고 한다. 그 빅판 분은 판매를 하며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 일을 떠올리면 힘이 나서, 여름에도 그 목도리를 가지고 다니며 '첫 마음'을 되새기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사실 처음부터 홈리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지나칠 때도 일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편견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 언젠가 아주 어렸을 적에, 거리에서 몸이 불편한 분이 구걸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다가가 돈을 드렸던 기억이 났다. 그때 나는 그 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나는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노숙을 하거나 구걸을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나는 모른다. 그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역경을 겪고 그 자리까지 왔는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빅이슈>를 파는 분들은 모두 노숙을 한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오셨다. 그중에는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도 있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상황이 어려워져 거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도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노숙인 등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의 겉모습만 보고 선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평범한 사람도 큰 병에 걸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갑자기 실직했을 때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누구든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것은 나와 동떨어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고, 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에 처한 개개인을 지원하고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빅이슈〉를 읽으며, 밤에 잘 수 있는 집과 세 끼 밥처럼 우리가 평소 당연시하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특히 무더운 날이나 추운 날에는 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날

마다 몸을 누일 요와 이불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정답게 얼굴 마주할 가족이 있다는 것은 사실 모두가 누리지는 못하는 기적이다.

빅판들이 거리 생활을 끝내고 자립하기로 결심하면서 파는 〈빅이슈〉는 다양한 사람들의 재능 나눔으로 만들어진 다. 잡지에 실릴 글을 기고하고 번역하고 삽화를 그리는 것 모두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다. 빅판 옆에 서서 잡지 판매를 돕는 친구들도 있다. 나는 글을 기고해 실린 적이 있는데,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잡지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뻐다.

잡지를 만들어 팔기까지의 과정은 우리가 모두 이어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햇빛과 바람과 비가 나무를 키우면, 그 나무로 만든 종이에 여러 사람이 협력해 글과 그림을 담는다. 인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잡지를 찍어내면 운전 기사분이 실어 나른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 권의 잡지가 바로 오늘도 거리에 선 판매원의 손에 들린 〈빅이슈〉다. 당

당한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분들의 모습에 독자들은 힘을 얻는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존재라도 없었다면 이 잡지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존재 덕분이 아닌가. 어제까지 땅과 하나였던 시금치를 오늘 먹으면 시금치는 내가 된다. 시금치는 해와 흙과 농부, 수많은 조건이 갖춰졌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시금치를 먹는 나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존재가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있으면서도 모두 이어진 하나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비다. 모두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오만은 근거 없는 것이리라.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그 뒤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그물망이 새벽이슬 맺힌 거미줄처럼 반짝 빛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것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무언가와 닿아 있지

않은 때가 없다. 땅, 공기, 누군가의 손으로 만든 옷, 옆 사람의 감정……. 각자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놓으면 외로움도 슬픔도 없으리라.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한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닌가. 언젠가 〈빅이슈〉에서 달라이 라마는 홈리스들은 물리적인 집은 없을지 몰라도, 이들이 가족이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내밀자고 하신 적이 있다.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렇듯 삶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고 영향 미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세월의 향기 보이차(普洱茶)

글 • 문정숙(차문화연구원)

진홍색의 탕색과 깊고 그윽한 향기, 입 안 가득 단맛을 남기면서 부드럽게 목을 적셔주는 따끈한 한 잔의 보이차는 떨어진 낙엽 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날의 운치와 잘 어울린다.

원난 보이차

보이차란 중국 원난의 대엽종 차잎으로 만든 쉐청차를 장시간 보관하거나 후발효 가공하여 만든 차로써 보이차라는 이름은 원난의 지명과 관계가 깊다. 명·청시대에 원난의 각지에서 생산된 쉐청차는 보이부(普洱府)에 운송되어 집중, 가공되어 보이를 중심으로 뺀어 나간 다섯 갈래의 차마 고도를 통해 나라 안팎으로 운송되었기 때문에 보이차란 이름을 얻게 되었다.

당시의 차 농사꾼들은 초봄에 맨 먼저 채취한 차잎은 가공하여 황제에게 공물로 바치고 뒤에 만 차잎은 가마 뒤움 후 햇볕에 말려 쉐청차(靑茶)를 만들었다. 이 쉐청차를 집산지로 운송할 때에는 차잎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잎에 물을 뿌렸는데 생산지에서 집산지까지는 거리가 멀었으므로 쉐청차는 긴 운송 기간 동안에 습열작용에 의한 초보적 발효과정을 겪는다. 차 집산지에 운반된 쉐청차를 찌고 틀에 넣고 눌러서 만든 각종 형태의 병치는 집꾼과 마방에 의해 100여 일이 걸리는 먼 티베트지역으로 운송되었고 이 과정에서 계속 발효가 진행되어 소위 6대 차류 중 흑차를 대표하는 ‘원난 보이차’가 만들어졌다. 이와 같이 보이차는 의도적으로 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난 지역의 기후 조건과 차잎의 성분, 운송과정과 저장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탄생된 역사적 산물이다.

보이차의 품질은 원난 대엽종 차나무 고유 성분과 제다의 특수성, 저장 환경, 보관 시간의 영향에 의해 결정된다. 열대 우림과 계절풍의 영향을 받은 습윤 열대의 상록 활엽수로 이루어진 숲, 풍부한 일조량, 연평균 기온 18~20℃, 강수량 1,500mm 정도의 고온다습한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원난의 대엽종은 폴리페놀과 카테킨, 카페인, 아미노산 등의 함유량이 높아서 최상급의 보이차로 생산된다. 완성된 보이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독특한 향과 맛이 더해지고 그 가치가 높아지는 보이차의 특성 때문에 차 애호가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으며, 혈중 지방 농도 및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 강하, 암 예방, 이노작용, 노화방지, 갈증과 숙취 해소 등 보이차의 효능, 효과가 점차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고조되어 보이차의 수요는 더욱더 급증하였다.

보이 생차(生茶)와 보이 숙차(熟茶)

차잎을 따서 덫고 비벼 햇볕에 말린 쉐청차를 증압하여 여러 가지의 병차, 타차, 전차 등을 만드는데 이 차는 아직 후발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이생차’ 또는 ‘청병’이라 부른다.

생차가 좋은 맛을 얻으려면 최소한 15~20년 이상의 자연 발효 기간이 요구되는데 그 까닭은 차 속의 폴리페놀이 미생물에 의해 완만한 후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향기롭고 깊은 맛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이러한 후발효 과정은 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장기간의 저장과 느린 운반 시간 동안에 거의 이루어졌다. 오늘날 대다수의 차도매상과 상인들은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긴 과정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없고, 차 공장에서는 숙성으로 차를 만들고자 고심하였다. 이에 원난 성 차업공사는 보이차 생산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에 착수하여 1970년대 초에 인공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숙성시키는 습수발효법(濕水醱酵法)에 의한 ‘보이숙차’의 생산 실험을 거친 후 기본적인 공정을 정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2013년 중앙모임 여러 활동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욕심내지 않고 떠벌리지 않고 마음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형화하였으며 현재는 보이차 제조와 품질을 통일된 규격으로 제시하여 모든 성(省)에서 시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요즘 시장에서 판매되는 보이차는 대부분 쾌속으로 발효시킨 '보이숙차'이다.

보이숙차의 제다와 저장

쇄청모차를 발효실(실내온도 25℃ 이상, 상대습도 85%) 내에 먼저 차를 한층 펴고 물을 뿌리고 다시 차를 한층 펴고 물을 뿌리면서 찻잎을 높이 쌓은 후 두꺼운 천으로 잘 덮어 보온보습을 유지하면서 30~40일이 지나 더미 표층에 물방울이 나타나고 잎의 색이 황갈색을 띠며 시고 매운 맛이 나기 시작하면 즉시 더미를 열어 찻잎을 비벼준다. 이러한 퇴적 공정 중에 미생물과 폴리페놀을 주체로 하는 지극히 복잡한 물리적·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

자연스럽게 찻잎에 붙은 검은 곰팡이, 푸른곰팡이, 회녹색 곰팡이, 거미줄 곰팡이, 유산균 및 효모에 의한 발효 작용과 효소의 촉매 작용 그리고 습열작용 하에서 폴리페놀의 산화와 축합, 단백질

과 아미노산의 분해 등 일련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카테킨의 고삼미가 현저히 감소되는 한편 아미노산류도 감소되므로 떫고 푹내가 나던 쇠청차는 뒷맛이 달고 담백하며 진향이 나는 보이차로 변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보이차는 건조한 창고에 보관하거나 숙성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습기가 많은 창고에 보관한다.

보이차 마시기

자사호에 보이차(3~5g)를 넣고 펄펄 끓인 물을 부은 후 곧바로 찻물을 쏟아 버린 다음, 자사호에 다시 물(150ml)을 붓고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유리 공도배에 찻물을 따라내어 보이차의 맑은 탕색을 감상하면서 미리 예열해놓은 찻잔에 우려낸 찻물을 따른다. 세월이 묻어나는 깊은 향기와 온화한 맛이 온몸에 퍼지는 느낌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신다.

- 2013년 한 해를 마감하며 아쉬움을 한데 모아 보이차 향기에 실어봅니다. 그동안 부족함 저의 글을 읽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 사업

1. 월간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 발행
 - 2013년 12월 통권 226호 발행/ 소식지 발송 봉사자 매월 20여명 참여
2.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개최
 - 3월 10일 - 법정스님 3주기 추모 겸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
 - 12월 15일 - 연말 송년회, 우수봉사자 시상 및 길상사 16주년 축하 음악회 예정
3. 맑고 향기롭게 '연꽃 스티커' 1만부 배포
4.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11월 16일 ~ 17일)
5. 맑고 향기롭게 연꽃 심벌 매뉴얼 작업
6. 홈페이지 개편 및 후원통합관리시스템 각 지부 구축, 시범 운영 중
7. 각 지역모임 활동 간사 워크(9월 10일)

세상 사업

1. 맑고 향기롭게 - 길상화 장학생 선정
 - 전국 고교생 대상(총 33명), 학비 전액 지원
 - 장학금 전달식 : 4월 19일(금)

2. 사회복지 시설 자원활동 및 재정 후원

- ① 월곡청소노인센터(서울성북구 월곡동) 운영 지원
- ② 정기 방문 시설 '나눔 행사' 개최
 - 모회원 : 10월 20일 - 어르신, 장애인 200여 명을 모시고 시설 정원에서 식사 대접
 - 진인요양원: 11월 10일 - '어르신의 마음' 국악공연
 - 승가원 장애인동시시설 : 8월 18일 - 장애인동 25명, 청소년봉사자 25명, 강화도로 쉼비누와 도자기체험
- ③ 정기 방문 시설 자원봉사자 자원활동
 - 서울노인복지센터 : 매주 월요일/매주 15여명
 - 승가원장애인동시시설(청소년 자원활동) : 둘째, 셋째 일요일 /매월 25여명
 - 진인선원 : 둘째 일요일 /매월 15여명
 - 모회원 : 첫째 일요일 /매월 20여명

3. 정기 재정 후원

- 부름의 전화(중증장애인 이동 봉사단체)
- 서울번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1명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2명(봉사자 방문시 물품 전달)



- 극빈 장애인 생계비 지원

4. 결식이웃 후원사업

- 결식이웃 밀반찬 지원 사업(매주 목요일, 금요일)
-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극빈 장애인 및 일반 가구 지원
- 밀반찬 2가지 조리 후 각 동사무소로 전달
- 분기별 생활물품 구입용 농협쿠폰 지급(가구당 3만원권)
- 3월 ~ 11월 둘째 목요일 김치 전달(가구당 3kg 내외)
- 매년 연말 김장김치 전달, 가구당 20kg 지원 (12월 4일 ~ 5일 예정)
- 연 3회 명절 특별후원(쌀날, 정월대보름, 추석)
- 1999년 8월 이후 현재까지 후원사업 진행 중
- 매월 50여명 봉사자 참여 / 김차-KTX 나눔 이회 30여명 참여

5. 전화말벗 정기 활동

- 빈찬 지원을 통해 결연을 맺고 있는 결식이웃, 장애인에게 봉사자가 매주 1회 정도 전화하여 건강 확인 및 말벗해주는 활동

6. 사례관리 전화 상담 및 방문

- 밀반찬, 전화말벗 대상자중 특별히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독거노인, 장애인)하여 정기적으로 사무국에서 전화 및 방문하여 사례관리

7. 맑고 향기롭게 극빈자 수술, 의료비 지원

-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해야 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웃을 찾아 재할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눔

- 총 2,000만원의 예산으로 7월 공모, 8월 집행 / 9명의 대상자 지원

8. 나눔의 기부문화 캠페인 진행 - 아름다운 마무리

-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금 캠페인 진행/둘째 토요일(지하철 역), 마지막 일요일(길상사 경내)

9. 불교 TV 협력기관 결연

- 불교TV 개국 18주년 기념 특별 생방송 프로그램 '보시' 본모임 결연 대상자 연계 후원 및 독거노인 현황을 알리는 활동 전개

10. 인터넷 모금, 홍보 활동(네이버 해피빈, 다

- 음 희망해, 페이스북 개설)
- 네티즌들의 기부문화 사업으로 해피빈, 희망해 모금 활동
-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 및 좋은 글을 네티즌, 회원과 공유하기 위해 페이스북 개설 운영

11. 정기적 봉사팀 과 사무국 간담회 진행

- 밀반찬, 전화말벗, 서울노인복지센터, 모희원, 승가원, 진인선원

자연 사업

1. 자연을 찾아가는 사람들 '숲기행' - 숲과 공존하는 전통마을을 찾아서

- 4월 ~ 11월까지 매월 첫째 토요일 실시(11월은 자원봉사자 참여)

- 참여인원 : 월 40명 / 약 320명 참여

2. 알뜰환경지킴이

① 천연화장품 강좌

- 천연화장품(로션, 세럼, 샴푸, 한방비누) 직접 만들어 쓰는 강좌 / 매주 수요일 개최 / 약 300여명 참여

②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활동

- 헌 옷, 헌 천을 후원 받아 리폼(가방, 앞치마, 소품) 하여 녹색나눔장터에서 판매

3. 녹색나눔장터

- 4월 ~ 10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아나바다 및 벼룩시장 / 친환경 물품 홍보 및 판매
- 2013년 수익금은 구세군 '미혼모 교육시설' 지원 예정
- 성북구청과 연대 외부 장터 활동 진행

연대활동

- 제5회 사랑나눔바자회 참여(먹거리 및 녹색장터)
- 부처님 오신 날 친환경 체험마당, 녹색장터 개최, 길상사 행사 지원

지부 활성화 사업

지역모임 활성화 방안으로 상근인력 지원 양성 / 인건비 최소 20% 이상 자체부담, 사업 운영, 집행 가능한 지부, 사업보고, 회계 결산 감

사 가능한 지부로 제한을 두어 집행

보건 복지부 장관상 수상

제2회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공모
- 10월 4일 KBS에서 표창 시상

법정스님 진영각 운영

법정스님의 진영, 유품, 저서 전시 관리 운영

맑고 향기롭게 2014년 달력 우수안내

11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1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후원해주신 회원님에 한해 2014년 달력을 우송해드립니다. 12월 중순경 도착할 예정입니다. 간혹 달력이 우편함에 넣어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신 회원님께서도 이때쯤 우편함을 꼭 체크해주셔서 귀한 달력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기해 후원해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12월에 후원 입금이 확인된 분들에 한해서 내년 1월에 달력을 우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은 하지만 소식지를 받지 않는 분 중에 간혹 달력 우송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4년 달력은 길상사의 사계(四季)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사진작가는 '오상우, 윤웅석'으로 길상사에서 찍은 사진작품을 무상으로 보시해주셨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자료

2014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직접 출력 및 홈페이지에서 후원내역 확인, 기부금 영수증 출력 가능

2013년 한 해 동안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금과 물품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모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내주신 후원금 및 물품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여 국세청에 보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모임에 등록된 후원회원(가족)님의 개인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후원자의 성함과 출금계좌 예금주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 영수증은 본모임에 등록된 후원자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또한 중앙모임으로 후원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후원내역, 기부금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며,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후원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중앙

모임 → 참여, 후원 → 나의 후원내역-기부금 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급받기가 어려운 분께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또한 이사를 가시거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께서도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말뼌 봉사자 모집

전화말뼌 자원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말반찬 지원) 대상자중 독거노인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일주일에 한번 전화 통화를 하여 일상적인 안부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집에서 전화로 봉사에 참여하실 분은 사무국으로 문의해주세요.

2013년 회원 수련회 원만회향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로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맑고 향기롭게 회원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상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며 살겠다는 공통적인 목적으로 한 명의 회원으로서, 봉사자로서 한 가족처럼 1박2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서울, 경기 지역 회원을 비롯하여 제주,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지역에서도 동참을 해주었습

니다. 이번 수련회는 길상사 템플스테이 일정 속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정스님께서 '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하신 의미와 뜻을 되새기는 영상법문, 길상사 더 자세히 둘러보는 시간, 이사장 스님의 좌선 강의와 실참 그리고 차담, 회원들 간의 교류 시간, 다도, 맑고 향기로운 마음을 위한 108배, 저녁·새벽 예불, 운력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과 매너미다 진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사무국은 더욱더 알차고 유익하면서, 맑고 향기롭게 모임만의 특색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겠다는 숙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이번엔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회원님과 봉사자님께서는 다음에는 꼭 참석하시어 맑고 향기롭게 운동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식이웃 말반찬 조리봉사 함께해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등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2가지 말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이 활동은 봉사자끼리 서로 웃어가며 함께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십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나눠주실 분은 언제라도 전화주세요.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재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하셔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여줄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서야 합니다.

일시 후원

식구 중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은 부담되는 경우, 회원은 아니지만 본모임 활동이나 뜻을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보는 우편비소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계좌로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본회 회원이 아닌신 분은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후원 전,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회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지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2일월), 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및 음악회(15일월) 오후 2시 ~ 4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결식이웃 후원 밑반찬 조리 자원활동(목요일(12,19,26일)/금요일(13,20,27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맑고 향기롭게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좋을 일복 차림
- 결식이웃 김장 나눔 /4일(수) : 천막 설치, 배추 속 재료 및 양념 준비
- 12월 5일(목) : 배추 속 넣기, 김장통 옮기기, 천막 정리

- 준비물 : 앞치마, 면장갑, 고무장갑, 일하기 편한 복장
- 혜택 : 소정의 기념품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VMS) 발급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매주 월요일(2,9,16,23,30일)/오전 10시 ~ 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승가원 장애인동시시설 정기 자원활동/둘째, 셋째 일요일(8,15일)/오전 9시30분~12시/청소년 봉사자
- 묘희원(치매노인 요양시설)/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활동/첫째 일요일(1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활동가
- 진인노인 요양원/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 마당 정기자원활동/둘째 일요일(8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셋째 목요일(19일)/오후 2시/세계일화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11,18일(수) 오후 1시 30분(삼푸, 로션, 에센스, 한방비누)/세계일화실, 비누는 맑고 조리장/선착순 7-8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매주 화요일 오후 2시/세계일화실



광주모임 (062-236-3129)

12월 정기 활동 안내

- '공양나눔 센터에서 동참해 줄 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9시30분에서 오후2시까지 진행되는 활동에 선행을 베풀어 주실 분을 기다립니다.
- 광주모임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80개의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으며, 점심공양 나눔의 집을 신설하여 저소득층과 고령층대상으로 하루 100명분, 일천 원의 식대로 12시에서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 독서모임 : 매월 둘째 수요일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대구모임 (053-753-8883)

12월 정기 활동 안내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조리 및 말벗(배달)나누기/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 / 자원봉사자수시모집
- 토요일로급식 및 웃음고실/매주 토요일/9시부터 음식조리, 2시 미무리
- 룸비니동산(장애인 아동 보호시설) 자원봉사 활동/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3~6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요양시설)정기방문 자원활동/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 9시 출발(목욕,식사케어,빨래정리,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매월 첫째 화요일 11시부터
- 운영위원회의/매월 첫째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12월 정기 활동 안내

- 보현행원(무료 노인요양원) 정기 자원활동-매월 셋째 주 수요일/오전 9시 30분 사무국출발/말벗되어 드리기, 청소, 빨래, 점심준비 등
- 자비공양의 집(무료급식소) 자원활동-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전 10~14시/매주 토요일 오전 10~14시/창원 사파복자회관 내 식당/점심준비, 설거지, 배식 등
- 봉림청소년문화의집'방과 후 아카데미-저소득층 공부방(초등·중등 40명) 지원/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5시
- 결연세대 정기방문 자원활동(재현이네와 10가구)-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4시/쌀, 밑반찬, 생활용품, 학용품 등
- '선 수련모임' 안내-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 맑고 향기롭게 '청년회 회원' 모집-삶에 열정을 가진 청년이라면 누구나/가입신청 사무국 ☎(055)266-0170
- 친환경 수세미 판매-경남 회원이 아크릴사로 손뜨개질한 친환경 수세미 구입/구입문의 ☎(055)266-0170
- 천연비누·천연화장품 만들기/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오후1시30분/재료비 22,000(수강료 없음)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부산모임 (051-898-2672~3)

12월 정기 활동 안내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매주 수요일/09:00~13:00
- 부산시립의료원 어르신 목욕

(사)맑고 향기롭게 에서는 대전, 충청지역에서 맑고 향기롭게 운동을 진취적으로 펼칠 수 있는 역량 있는 대전지부장과 실무를 충실히 이행하실 분을 모집 및 추천을 받습니다.

1. 자격 :
 - 정관 목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재(휴)폐지 정관 참조
 - 지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자
2. 신청기간 : 2013. 12.1~1.15
3. 신청방법 : 별도 문의, 상담
4. 선정자 결정 : 접수 후 개별 통보
5. 문의처 : (사)맑고 향기롭게 중앙사무국 / ☎ 02-741-4696

- 매주 목요일/10:00~13:00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매주 목요일/09:30~13:30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도시락 전달
매주 금요일/10:30~13:00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장애우 이동목욕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09:30~13:30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매월 1,3주 금요일/09:30~12:00
- 매달 첫 번째 토요일-물운대 종합사회복지관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지역정화활동
- 매달 세 번째 화요일-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매달 네 번째 금, 토요일-용두산 공원 무료 급식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다라니기도

- 일시 : 12월7일 (오후7시~9시)
- 장소 : 극락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 일시 : 12월14일 (오후9시~다음날오전4시)
- 장소 : 길상선원
- 법사 : 주지스님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12월14일 (오후8시30분~다음날오전4시까지)
- 장소 : 극락전
- 준비물 : 물병, 수건, 좌복보호대

12월 주말 선 수련회

- 일정 : 셋째 주말 21일(토)~22일(일)
넷째 주말 28일(토)~29일(일)
- 참가비 : 5만원(입금순 50명 선착순 마감)

동지기도

-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시작을 준비하는 의미의 동지기도가 아래와 같이 봉행됩니다.
- 일시 : 12월22일 /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90일 관음기도

- 일고요한 정진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밝혀 가는 90일의 시간!
동안거 결제 기간 동안 관음기도를 함께 합니다.
- 입재 : 2013년11월17일
- 회향 : 2014년 2월14일
- 장소 : 극락전

신정합동차례

-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공양을 올리는 신정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14년1월1일 / 오전9시50분
 - 장소 :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정진

- 음력 12월8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깊은 선정에 들어 정각을 이룬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 철야정진의 시간을 마련하오니 자신의 참마음을 깨닫기 위한 정진의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1월7일 저녁9시 ~ 8일 새벽3시50분까지
 - 장소 : 극락전/길상선원

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초하루법회	1월1일, 1월3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신정합동차례	1월 1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월 4일	오후 7시	극락전
성도재일 철야정진	1월 7일	오후 9시	극락전, 길상선원
시민선방 철야정진	1월11일	오후 9시	길상선원
삼천배 철야정진	1월11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1월18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1월2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 일	새벽 4시, 오전 9시50분, 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오후 3시	적묵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길상사 창건 16주년 기념 법회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가 삼각산 자락에 향 사르며 첫 목탁을 울리던 날은 1997년 12월 14일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길상사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과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상사는 개원 기념법회를 창건일에 가까운 일요일 12월 15일 극락전에서 오전 9시 50분 부터 봉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길상사의 개원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 시간: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필리핀 이재민 돕기 성금 모금

길상사와 (사)맑고 향기롭게는 초강력 태풍 '하이옌'의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필리핀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초강력 태풍으로 필리핀에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우리 사회, 나라, 세계 전체로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나눔의 삶을 살 것이며, 은혜로운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가는 살림의 삶을 살아가길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 모금기간 : 2013년 12월 31일까지
- 모금 방법 :
맑고 향기롭게 : 외환은행 141-22-01683-9
길상사 : 경내 필리핀 이재민 돕기 모금함 / 신한은행 100-017-663231

초대합니다.

색색이 물들었던 단풍을 벗어내고
속살을 드러내는 나뭇가지에 하얀 눈이 내려앉는 12월입니다.
얼어붙은 땅으로 인해 모든 생명이 조용히 잠을 자는 듯하지만,
안으로는 새 생명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2013년의 끝자락에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모든 인연님을 모시고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정겨운 송년회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길상사 창건 16주년을 기념하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도 마련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시간으로
연말을 따뜻하고 푸근하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송년&음악회에 맑은 회원님과 향기로운 신도님
그리고 인연 있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오니,
주인 된 마음으로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 **일정 : 2013년 12월 15일(일요일)**
- ※ **길상사 창건 16주년 기념 법회 : 오전 9시 50분 (극락전)**
- ※ **맑고 향기롭게 송년회 및 음악회**
 - 1부(송년회) : 오후 2시
 - *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활동 안내 및 시상
 - 2부(음악회) : 오후 2시 30분
 - * 노래하는 사람 '임정득' 밴드

